

실종된 국가 중요 야생생물 종과 서식지 보호 정책¹⁾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 천연기념물 ‘산양’ 집단 폐사가 던지는 위험 경고, 확산일로의 멸종위기야생생물 종과 서식지 파괴 주범에 스스로 환경부가...

한 상 훈²⁾
한반도야생동물연구소 소장

I. 들어가며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는 전 국토의 70%가 산악지역으로 매년 겨울이 되면 해발 고도가 낮은 산자락 밭이나 산촌 농경지에서 먹이를 찾고 있는 야생동물들을 쉽게 볼 수 있다. 겨울은 야생동물의 생존에 가장 혹독한 시련의 계절이다. 그 위에 대설까지 내리면 배고픔에 굶주린 야생동물이 마을까지 내려오는 일도 예부터 흔하다.

금년 2월은 근래 보기 드문 대설이 연이어 찾아왔다. 강원도 북부 산악지역에 기상 예보 적설량 90cm와 70cm 그리고 40cm의 대설이 내렸다. 2월 중순부터 3월 초 강원 북부 접경지역 주민과 타지에서 방문한 사람들은 마을과 도로변에서 풀이나 키 작은 나무의 잎을 뜯어 먹기 위해 안간힘을 다 하는 ‘산양’을 너무나 쉽게 발견하곤 놀라워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산양은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된 법적 국가보호 희귀 야생동물로, 평소에는 여간해서 깊은 산중으로 가지 않으면 만나기 어려운 존재이기 때문이다.

I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과 방역울타리 설치

대설이 내린 강원도 산간 지역에 천연기념물 산양의 힘든 겨울나기를 더 어렵게 만든 또 하나의 심각한 장애물이 있다. 2018년 8월 유럽에서 수천 km 떨어진 중국에서 아시아지역 최초로 발병한 아

1) Lost National Policy of Endangered Species and Habitat for Conservation

2) HAN, Sang Hoon, Director, Inter Korea Wildlife Institute, E-mail : koreawolf4444@gmail.com

프리카돼지열병(Africa Swine Fever, ASF)이 단 1년만인 2019년 9월 16일 우리나라 경기도 파주 양돈농가에서 갑작스레 발생하고, 황급히 전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전파경로를 따라 강원도 전역의 국도와 지방도를 따라 세워진 ‘멧돼지이동차단울타리’다(이하 방역울타리). 방역울타리는 서해안에서 동해안까지 240여 km 동서 구간뿐만 아니라, 남북으로도 수백 km 막힘없이 설치되었다. 심지어 일반도로가 아닌 산속 임간도로(임도)를 따라 거침없이 세워져 갔다.

환경부가 2019~2022년 사이 전국 주요 간선 국도를 따라 설치한 광역 방역울타리 총 길이는 1,831km로 강원도 지역에만 1,179km의 방역울타리가 설치돼 있다. 지자체가 설치한 2차 방역울타리까지 포함하면 2,806km로 지역에 따라 이중, 삼중으로 설치되어 있는 구간도 적지 않다.

Ⅲ. 멧돼지의 무차별 포획

2019년 9월 16일 경기도 파주 양돈농가에서 최초로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자 방역 대응에 준비상황에 돌입한 정부의 초기 대응은 야생 감염 멧돼지의 양돈농가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경기도와 강원도 접경지역에 서해안에서 동해안으로 연결된 도로를 따라 방역울타리를 긴급 설치하고, 야생 멧돼지를 집중적으로 포획하여 개체 수를 급감시키는 방안이 채택되었다.

그에 따라 전국의 야생 멧돼지포획 수는 기존 연간 2만 마리에서 10만 마리로 5배 급증하였다. 포획 한 마리당 30만~50만 원의 포획장려금도 지급되었다. 지금까지 방역울타리 설치와 멧돼지포획 장려금 지급에 쓴 예산도 일조 원을 가볍게 넘는다.

2021년 11월 9일자 강원도민일보 기사에 따르면 “강원도내 멧돼지 92% 감소...”라는 강원대학 산림과학부 야생 멧돼지 연구팀의 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하였다. 아프리카돼지열(ASF)이 발생한 지 불과 2년 만에 강원도 관내 야생 멧돼지가 거의 꺾멸 직전에 이르렀다(21-11-09 강원도내 야생 멧돼지 서식밀도 92% 감소. KBS). 민간인 출입이 통제된 민통선에서도 관할 군부대에서 멧돼지포획 자격수의 정밀 타격 포획으로 야생동물의 낙원으로 알려진 접경지역도 야생 멧돼지가 절멸 직전에 이르렀다.

Ⅳ. 방역울타리 문제 심각성 제기

2022년부터 방역울타리 문제점을 언론과 전문가 사이에서 지적하기 시작하였다. 2023년 3월 21일자 채널A <장장 2,800km ‘있으나마나’...구명난 멧돼지 울타리> 기사에 대해 환경부는 다음날인 3

월 22일 방역울타리가 “현장점검단 및 유지보수 업체를 활용하여 매일 상시 점검하고 ARS 민원접수 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울타리 훼손 제보 및 민원이 접수되면 신속 보수하고 있음”으로 문제없다고 보도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반박하였다.

그보다 6개월 전 2022년 10월 19일 환경부는 보도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언론이 지적한 3가지 지적 사항 “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 울타리가 군데군데 뚫려 있거나 무너진 곳이 있으며,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된 곳도 많음(※ 지방서에는 철망을 땅속 70cm 아래까지 묻도록 되어 있는데... 규정 따로, 시공 따로), ② 울타리 미터당 평균 6만 2천원대로 시공, 시중 시공 단가 3만원대보다 2배 가량 비싼 금액, ③ 차단울타리가 멧돼지 이동을 막는데 별 효과가 없을 것임”에 대해 “우리나라는 울타리 설치 이후에 ASF 확산 속도를 억제하여 양돈농가의 방역 대책 추진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해왔고, 지난 3년간 ASF 확산을 중부권 내로 막아내는 효과가 있었음”이라며 거의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였지만, 실제 현장의 상황은 달랐다.

결국 자신만만하게 아프리카돼지열(ASF) 차단 효과가 있다던 방역울타리는 2023년 12월 부산광역시 도심 산에서 아프리카돼지열 감염 멧돼지 사체가 발견되면서 관리와 차단에 문제점 없었던 환경부 입장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방역울타리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그치지 않고 있다. 도로와 하천에 이중 삼중 설치되어 있는 등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하며, 심지어 마을 앞을 지나며 설치된 방역울타리가 관리 소홀로 풀로 덮여 있고, 파손된 울타리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등 마을 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주민 의견이다. 게다가 멧돼지 이외의 국가보호 야생동물 산양의 생태통로 차단 등 지속하여 다수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V. 방역울타리의 구조적 위험성

방역울타리는 구조적으로도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다. 철사가 그대로 뾰족하게 위에 드러나 있어 자칫 야생동물이 뛰어넘다가 노출된 뾰족한 철사에 그대로 살이 패이고 열상을 입을 위험성이 매우 높다. 실제 도로로 나왔다가 차량에 놀라 방역울타리를 넘다 노출된 뾰족한 철사 끝에 찢려 상처 입은 고라니를 목격한 적이 있다.

게다가 도로로 출현한 야생동물에게 방역울타리는 갈 곳을 잃은 야생동물의 로드-킬 발생을 더욱 가중시키는 원인도 제공하는 상당히 위험한 장애물이다.

VI. 산양 집단 폐사와 방역울타리 철거 최초 지자체 행정 요청

2023년 1월 전국 최초로 인제군이 애물단지로 전락한 아프리카돼지열(ASF) 방역울타리 관내 전 수조사를 하여 문제 지역 13개소 8.7km를 1차 철거 대상 구간으로 선정하고, 구체적 철거 방법을 논의한 뒤 환경부에 요청하였다. 현재 인제 관내에는 환경부가 95억 원을 들여 직접 설치한 212km의 광역 울타리와 인제군이 국도비 35억 원을 투입 설치한 2차 울타리 71km 등 283km의 방역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다. 2023년 3월 14일 인제에서 개최된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2023년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공동 상정 안건으로 정식 채택하여 정부 관계부처에 방역울타리 철거와 더불어 안전 행정부에 기존 발생지역을 장기·단기 아프리카돼지열 미양성지역으로 구분하는 관리지역 재설정도 건의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방역울타리가 철거된 지점은 없다.

강원도 인제군은 우리나라 3대 국가생태핵심축이라 일컫는 남북한의 산줄기를 이어주는 ‘백두대간 생태축’과 한반도 중앙을 동서로 가로지어 연결된 ‘디엠지생태축’이 만나는 유일한 지자체로 면적의 90% 이상이 산악 산림지대다. 대한민국에서 산림생태계의 자연성과 건강성이 매우 우수하고 천연기념물 산양과 사향노루, 야생 반달가슴곰을 비롯한 국가 멸종위기야생생물의 종다양성이 가장 풍요로운 생태계 寶庫(보고)지역이자 생물다양성 핫스팟(Hot Spot) 지대다. 설악산국립공원구역에만 300여 마리의 산양이 살고 있고, 인제군 전역에 약 7백 마리의 산양이 서식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환경부 추산 국내 생존 ‘산양’ 개체수는 약 1,630마리. 현재까지 확인 보고된 폐사 산양 수는 1,000여 마리로 밝혀졌다. 국내 산양 생존개체수의 61%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멸종위기야생동물 산양의 약 3분의 2가 집단 폐사하는 동안 정부 관계 기관(환경부와 국가유산청)에서는 뭘 했느냐?는 시민들의 질책과 원망의 목소리가 뜨겁다. 특히 폭설로 산 아래로 먹이를 찾아 이동해야 하는 길목마다 아프리카돼지열(ASF) 차단 울타리가 쳐져 있어 가뜰이나 탈진에 굶주린 산양이 이동이 막혀 눈 속에 죽은 산양도 울타리에서 발견되어 국가 중요 생물종 ‘산양’ 보호 관리 정책이 현장 현실과 너무 다르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도 환경부는 계속하여 방역울타리를 철거할 수 없으며, 산양 등 야생동물이 이동 가능한 폭 4미터 이동통로 시범 구간의 산양 통행 모니터링을 하여 그 결과를 보고 부분적이거나 울타리 제거를 검토하겠다고 고집하고 있다.

2월 폭설이 내리기 전부터 울타리에 의한 산양 등 야생동물의 이동이 차단되어 문제가 심각하다는 시민단체의 요구와 지적이 있었고, 2019년 9월 아프리카돼지열 국내 발병 이후 급하게 설치한 멧돼

지 이동 차단 울타리가 도로뿐만 아니라, 산간 임도까지 이중 삼중으로 설치되어 오히려 산양과 사향노루 등 국가보호종의 생존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는 문제 제기가 울타리 설치 초기부터 제기되어 왔다.

그리하여 국립생태원과 국립생물자원관 등에서 방역울타리가 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이동 차단 여부에 대해 감시카메라와 현장 조사를 2020년부터 오늘날까지 해오고 있다.

그동안 환경부는 방역울타리가 멧돼지 이동 차단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자화자찬하여 왔다. 그렇다면 산양 등 다른 야생동물들이 이동에 심각한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 그동안의 조사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하고 활용하여 대책을 세우면 될 일이다.

앞으로도 산양 집단 폐사가 발생할 위험성은 매년 있다.

아프리카돼지열(ASF) 발생한 유럽의 경우 1년 만에 종식시킨 국가가 많다. 국내 수의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양돈농가 대부분이 영세농가로 위생환경 관리에 매우 취약한 구조가 아프리카돼지열 감염 확산의 근원적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정부와 연구기관에서 방역울타리에 의존하고 야생 멧돼지포획 이외 무엇을 했는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가를 중심으로 Red zone(위험 지역, 농가 중심 3km 구역), 국가 중요 보호 야생동물 서식지와 핵심 이동 경로 등 생태계 우수지역과 보호지역은 White zone(안전지대), 양돈농가와 산림 중간지대를 Yellow zone(완충지대)로 설정하여 최소한 안전지대 만이라도 아프리카돼지열 차단 울타리를 전면 또는 부분 철거를 하길 환경부와 관계 당국에 바란다.

Ⅶ. 환경훼손 개발에 앞장 선 환경부

자체 환경영향평가에서 겨우 단 서너 종의 멸종위기야생동물이 보고된 그러나 시민들이 스스로 찾아낸 무려 17종의 멸종위기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대구 금호강 팔현습지 보도교 설치 개발사업(24-03-25 팔현습지 법정보호종 모두 17종, 환경단체, 보도교 공사 중단 촉구-매일신문)과 4대강 사업 대구모 물막이 보 가운데 전국 유일하게 금강 물이 흐르는 세종보 물막이 재가동 사업(24-06-12 세종보 수달 지켜라-오마이뉴스)은 환경부와 지역/유역 환경청에 의해 스스로 환경훼손에 앞장 선 대표적 개발사업 사례다.

낙동강 구미 선산의 멸종위기야생동물 표범장지뱀의 전국 최대서식지는 월동한 적 없는 그리고 앞으로 언제 월동할지도 모르는 채두루미와 흑두루미 월동서식지 환경 개선 개발사업으로 대구모로

파 해쳐질 위기에 놓여 있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의해 허가된 지자체 구미시의 세금 낭비 개발사업 전형적 사례다(24-06-13 구미 해평습지 표범장지뱀 서식지 2탄. 오마이뉴스).

VIII. 마무리 글

지난 30년간 환경부는 백두대간 핵심 생태축 보전과 복원, 멸종위기야생생물 종과 서식지 보호 및 복원사업 등 본연의 국가 자연환경 보전과 복원을 위한 주무 정부 부처로서 그 사명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으며, 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한 학술적 전문연구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과 국립생태원 등을 설립하였다.

환경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산적한 작금의 엄중한 사회적 시대적 환경위기 시대에 세계 경제선진국으로서 뿐만 아니라, 환경선진국으로서 그 위상에 걸맞게 국가 환경 주무 부처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국민에게 사랑받는 환경부로 스스로 재탄생하길 희망해 본다.



〈그림 1〉 인적 드문 백두대간 향로봉 방역울타리에서 발견한 천연기념물 산양 주검. 강원도 인제. 2022. 5. 18.
(사진 제공 사단법인 인제천리길)



〈그림 2〉 미시령 고개 도로변 방역울타리에서 웅크린채 꼼짝 못하는 어린 산양. 강원도 인제 미시령 옛길. 2021. 3. 4. ©최중기



〈그림 3〉 도로로 나왔다가 설치된 방역울타리에 막혀 로드킬 당한 고라니. 인제 내린천 도로. 2023. 8. 6. ©한상훈



〈그림 4〉 백두대간 향로봉 민통선지역까지 설치된 방역울타리. 강원 인제. 2022. 6. 25. ©한상훈



〈그림 5〉 인적 드문 백두대간 조침령 고개 옛길로 가로질러 설치된 방역울타리. 2021. 6. 5. ©한상훈



〈그림 6〉 방역울타리에 스스로 이동통로를 만들어 출입하는 산양. 인제 서화리. 2024. 3. 29 ©한상훈



〈그림 7〉 인제 미시령 옛 도로변에 먹이 찾아 출몰한 천연기념물 '산양'. 2024. 2. 7. ©한상훈



〈그림 8〉 열린 출입문으로 방역울타리를 통과하여 이동하는 천연기념물 '산양'. 강원 인제. 2022. 2. 9. ©한상훈



〈그림 9〉 방역울타리로 먹이 찾아 몰려든 천연기념물 '산양' 무리. 강원 인제. 2024. 3. 13. ©한상훈



〈그림 10〉 민통선내 농원에 몰려와 공급한 사료와 풀 먹는 산양 무리. 인제 서화면 대곡리. 2024. 3. 4.



〈그림 11〉 먹이 찾아 심지어 민가 출입문까지 찾아온 산양. 인제 북면 모란골. 2024. 3. 2.
사진 지역주민 제공



〈그림 12〉 먹이를 찾아 산자락 도로에 자주 출몰하는 산양 출몰 주의 안내 현수막.
인제 북면 용대리 구도로. 2024. 3. 10. ©한상훈



〈그림 13〉 설악산 내설악 입구 용대리마을 민가 처마아래로 먹이 찾아 피신해 온 산양과 촬영하는 주민.
2024. 2. 24.



〈그림 14〉 폭설로 탈진 죽은 산양 사체.
인제 방태산. 2024. 3. 25. ©신정수



〈그림 15〉 방역울타리를 타고 넘어가도록 설치한 국립생태원의 산양 월담로. 인제 적계로. 2022. 6. 15. ©한상훈

참 고 문 헌

- 2021 채용공고문(ASF 차단 울타리 관리요원). 인제군 공고 제2021-785호.
- 2021-11-09 강원도내 야생 멧돼지 서식밀도 92% 감소. KBS.
- 2022-10-19 (ASF팀, 보도설명자료) 광역울타리 설치관련 설명자료. SBS.
- 2023-03-22 (환경부) (보도설명자료)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 광역울타리는 상시 점검 및 신속 보수 등 유지관리하고 있음.
- 2023-05-22 멧돼지울타리 문제점. MBC NEWS.
- 2023-08 2023년도 ASF차단울타리관리 역무대행사업. 환경보건협회.
- 2024-03-25 팔현습지 범정보호종 모두 17종. 환경단체, 보도교 공사 중단 촉구-매일신문.
- 2024-03-28 뺨뺨한 울타리...유례 없는 산양 집단 폐죽음. YTN.
- 2024-04-01 [단독]천연기념물 산양 537마리 폐죽음...“환경부 방치 탓 현장은 공동묘지”. 경향신문.
- 2024-04-09 2,800km 방역울타리의 역설... 돼지열병은 못 막고 산양만 잡아. 동아일보.
- 2024-04-11 산양 폐사 논란에 정부, ASF 차단 울타리 시범 개방 추진. 돼지와사람.
- 2024-04-14 지난겨울부터 산양 750마리가 죽었다...전체 3분의 1 사라져. 연합뉴스.
- 2024-05-29 “강원도 산양, 멸종 수준의 폐죽음” 정보공개청구로 밝혀낸 30대 직장인. 경향신문.
- 2024-06-07 세종보 수달의 흔적이 던진 물음. 오마이뉴스.
- 2024-06-11 표범장지뱀 해평습지 대량 서식. 오마이뉴스.
- 2024-06-12 세종보 수달 지켜라. 오마이뉴스.
- 2024-06-13 구미 해평습지 표범장지뱀 서식지 2탄. 오마이뉴스.
- 2024-06-16 <천연기념물 산양, 지난해 반년간 1022마리 숨졌다>. 서울경제.
- 2024-06-18 국가유산청 “산양 대량 폐사 원인분석·피해방지 대책 강구”국가유산청. 대한민국 정책브리핑.